

제5회 비폭력트레이닝

1. 영상시청 : ‘수천 번 드러눕기’ 행동 (약 44분)

- 시청이 끝난 후 간단히 소감 듣기 (20분)

- 캠페인 사례연구 가이드 간략 설명 (10분)

2. 5회 사전트레이닝 전체 평가

- 5회 동안 진행된 내용 설명 (차트 이용하기, 놓친 부분들 꼼꼼히 챙기기, 10분)

-

5회의 사전트레이닝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 3가지만 말해 주세요.

5회 동안 적절한 분량의 주제를 다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너무 많았나요? 적었나요?

잘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자신들의 활동에 이 모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 생각하나요? (스펙트럼 툴 이용)

10월 정식교육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는? (드니스가 보내준 것이랑 우리 의견 종합해서 페이지 만들기)

비폭력 촉진자 양성을 위한 트레이닝 대강의 기획

트레이닝의 목표

- ▶ (네트워크) 한국에서 비폭력 트레이너들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기 위해 관심사, 욕구 및 다음 행동들을 탐구한다.
- ▶ (비폭력트레이닝에 대한 이해도 및 실천) 참가자들 각자 활동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비폭력트레이닝의 이해와 실천을 발전시킨다.
- ▶ (자료의 각색) 한국적 상황에 맞게 비폭력 자료들을 분석하고 각색하는 것을 돕는다.

Day1 10월 4일 (목) 우리에서부터 출발하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여기에 왔는가?	오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주로 어색함을 깨고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시간들(관심사, 성격 등)로 채워집니다.
Day2 10월 5일 (금) 폭력과 비폭력, 함께 하는 행동 준비하기	스펙트럼, 바로미터 등등
Day3 10월 6일 (토) 집단적 행동 준비하기 (나+너+우리가 무엇을 함께할 수 있을까?)	참여 및 모든 이들의 가치를 강조하는 시간. 참여적인 활동, 집단의 힘 폭력을 경감시키는 방법들
Day4 10월 7일 (일) 평가	새롭게 발견한 것, 내가 잘 하는 것, 더 배우고 싶은 것, 앞으로 트레이너(촉진자)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 등
<p>④ 5차례의 사전 트레이닝과 10월의 트레이닝이 다른 점은 주로 진행하는 방법들, 스킬들 및 WRI 핸드북을 기초로 한국적 맥락에 맞는 워크샵, 게임, 자료 등을 개발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 매일의 트레이닝 마지막에 TFP(Today's Facilitation Point) 시간을 갖고 오늘 했던 트레이닝의 핵심들을 짚고 만약 우리가 우리 조직으로 돌아가 이런 트레이닝들을 진행해 본다면? 이런 논의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을 예정입니다. 트레이닝의 마지막에 매일 다뤄진 TFP를 모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룹에 돌아가 활용할 수 있는 'real' 아젠다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p> <p>④ 짧은 시간 동안에 이해도를 높이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참가자들 모두가 공감하고 활동(부분적으로든 전폭적으로든)하고 있는 '강정투쟁'을 기본 사례로 해서 트레이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p> <p>④ 매일 저녁 식사 이후에는 그 날 했던 트레이닝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을 거예요. 어떤 활동은 좋았고 잘됐고 어떤 활동은 별로였는데 이유는 뭐고 등등. 그리고 이후에는 피스바(Peace Bar)가 진행됩니다. 친교와 사교의 시간이죠. 춤과 술과 게임이 어우러지는.</p>	

준비물 등 개인적으로 신경 쓰실 일들

④ 일정 : 10월 4일(목) 낮2시 ~ 10월 7일(일) 낮12시

④ 장소 : 국회연수원 (강화도 소재),

- 오는 방법 : 신촌오거리 현대백화점 정류장 앞에서 3000번 빨간버스 승차 -> 강화터미널에서 하차 (약 1시간 45분 소요) -> 강화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25번 버스 승차 -> 국회연수원입구 정류장에서 하차 (약 35분 소요) -> 국회연수원입구까지 도보 (약 350m)

- 25번 버스 시간표 강화터미널에서 오전 6:40 / 8:15 / 10:40 / 오후 3:10 / 5:00 / 8:10 출발. 늦게 합류하시는 분들은 시간 잘 맞춰 오세요. 3000번 버스는 거의 10분에 1대 있다고 합니다.

▶ 개인이 챙겨야 할 물품 : 수저, 컵, 수건, 세면용품

▶ 국회연수원 숙박시설 두 곳(한 곳 당 10명 수용가능)을 빌렸는데 부득이하게 마지막 날은 한 곳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셋째 날 숙박 시 침구류가 10인용만 있는 관계로 침구류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침낭이나 텐트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은 지참 부탁드립니다.

▶ 식사가 채식으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각자 기호에 맞는 반찬 등을 준비해 오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 기타나 다른 약기 등을 가져오셔도 좋아요. 밤에 피스바(Peace Bar)에서 역량을 맘껏 뽐내주세요.

캠페인 사례연구 가이드

캠페인을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을 통해 사람들은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의 비폭력 캠페인들로부터 배워왔던 것처럼 우리의 투쟁과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것은 다른 시공간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비폭력 사회 역량강화(Nonviolent Social Empowerment) 사례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이 가이드는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 차원에서 캠페인의 사례연구를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가이드는 또한 캠페인을 조직할 때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관해 상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개관

캠페인의 유형 - 쟁점은 무엇인가? 언제 시작하고 끝나는가?

지리적, (간략한) 역사적 맥락

참가자들 - 누구인가? (계급, 인종/민족, 젠더, 종교그룹, 나이, 성별, 능력, 기타 등등 분석) - 이것은 운동의 각 단계마다 달라지는가?

연대표

시작점

두드러진 국면이 있었나?

(캠페인) 확대의 특정한 순간이 있었나?

최정점은 무엇이었나?

다른 핵심 행사들은 무엇이었나?

비폭력

폭력을 피하고자 하는 대중적인 관심이 있었는가?

비폭력에 대한 대중적 정책선언이 있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거기서 비폭력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가? 이것을 둘러싼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비폭력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시도되었는가?

비폭력 트레이닝이 있었는가? 비폭력 가이드라인이 있었는가?

캠페인이 사회의 가치를 보다 비폭력을 향해 돌려놓았다고 보여 지는가?

행동의 방식 혹은 조직 방법에 관해 영감을 주는 특정한 원천이 존재했는가?

수단들

공식적 경로, 로비, 선거 과정, 헌법적 메커니즘에 어떤 수단들이 사용되었나? 그리고 그 영향은 어떠했나?

주요 언론을 어떻게 활용했나?

그것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고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었나?

어떻게 단체들은 스스로의 언론 혹은 대안 언론을 개발하고 사용하려고 했는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캠페인이 대안을 건설하려고 노력했는가? 그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졌는가 영구적인 것으로 여겨졌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운동의 문화 혹은 유대감을 건설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 사용되었는가? 그 효과는 어떠했는가?

전략으로서 협조 철회를 사용하였는가? 어떤 시점에서 사용하였는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캠페인이 목표로 하는 대상을 직접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는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초점을 가지고? 어떤 수준의 참여였는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전통적인 방식의 시위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어떻게 다른 방법들과 병행하였는가?

조직

캠페인이 공식 체계에 대해 동의했는가?

어떤 비공식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캠페인은 참여적 조직 체계 및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것에 대해 고려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되었는가?

다른 그룹/운동들과 캠페인이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가?

연대 형성의 중요성이 얼마만큼인가? 동맹에 대한 어떤 비판? 얼마만큼?

활동가들의 배움, 성장, 습, 지속가능한 실천에 대한 욕구들을 캠페인은 어떻게 제기해 왔는가?

안전에 대한 욕구와 참여에 대한 열망 사이의 가능한 모순을 캠페인은 어떻게 다뤘는가?

운동이 직면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억압은 무엇이었나?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대책은 무엇이었나?

캠페인이 명확한 기간 및 전술 개발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가?

캠페인은 어떻게 고유의 자원(사람, 사회, 경제 등)을 개발했는가?

목표 및 결과

최초의 목표는 무엇이었나?

그 목표들이 어떻게 진전되었는가? 왜?

그것이 참가자들의 능력강화를 목표로 하였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목표들이 틀을 잡아갔는가? 예를 들어 어떤 슬로건을 사용했는가?

목표들을 수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었는가? 예를 들어 특정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혹은 이미 거둔 성공 위해 새로운 목표를 구축하기 위해?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가진 권력을 쥐고 있는 기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을 기대했는가? 예를 들어 변환되거나 당신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수용하거나 해체되거나 사라지는 등.

어느 정도까지 목표들을 성취했는가? 장기, 중기, 단기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가? 긍정적 및 부정적

상대방이 현저하게 우리의 이상을 돕는 어떤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역량강화

모든 질문들은 어떤 식으로든 역량 강화와 연결된다. 이 결론 부분은 앞의 몇몇 주제들로 돌아갈 것이나 이번에는 보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 다루고자 한다. 답변들은 내 안의 권력,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권력 및 어떤 것과 관련된 권력의 관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누구의 역량이 강화되었는가? 혹은 될 것인가? (참여하고 책임을 나누고 솔선하고 행동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역량강화를 위해 기여한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트레이닝, 그룹의 자신감, 기술적 목표에 대한 성취 등)

운동의 각 시기별 경험이 역량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역량강화가 되지 않았다고 느낀 참가자들은 어떤가?

역량강화의 기술들이 어떻게 논의/구성 되었는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역량을 오히려 빼앗긴 참가자/그룹은 없는가? 어떻게 그리 되었나? 이것이 캠페인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평가

행동에 대한 평가과정을 통해 우리는 행동의 경험을 유의미한 것으로 남길 수가 있다. 대개의 평가는 개인적인 감회나 친구들과의 대화, 활동을 준비하는 데 주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리더들')들과의 대화처럼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행사 이후 피드백을 거쳐 교훈을 남길 수 있는 하나의 평가 틀을 보여주고자 한다. 평가가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평가를 소수의 사람들에게 맡겨버리기보다는 준비된 하나의 틀 속에서 평가 역시 집단활동의 하나로 구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공식적인 평가과정을 통해서 서로 다른 차원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했던 참여자들이 모두의 노력, 경험, 헌신들을 공론화하고 되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행동에 참여 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행동을 기획하고 준비했던 사람들 모두는 이 평가과정까지 열심히 참여할 필요가 있다.

평가과정이 활동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됐을 때 구성원들은 행동의 과정이나 내용들에 대해 생산적이고 솔직한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명심할 것은 평가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꼭 모두가 동의나 합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행동에서 좋았던 점들, 아쉬웠던 점들 모두가 논의될 수 있어야하며, 단 가능하다면 행동의 긍정적인 부분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의 틀은 주의깊게 설계되어야 한다.

평가에서 다루지는 사안들 중에는 양적인 것에 관한 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 예컨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리플렛을 나눠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는지, 얼마나 많은 보도가 되었는지, 도로를 얼마나 오래 가로막고 있었는지 등등. 만약 이와 같은 정보들이 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수치들을 계산하는 나름의 방식을 개발해서 이를 토대로 행동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사람을 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때로는 이와 같은 숫자 놀이가 평가의 원래 목표와 멀어져버리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 특히나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의 경우에는 더 그렇다. 예를 들어, 앞서의 시위보다 이번 시위에 나온 사람들 숫자가 더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이 시위의 파급력이 줄어든다거나 처음 참여한 사람들은 지루함을 느낀다거나 혹은 시위 자체에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다. 한편, 또 다른 예로는, 어느 군 부대 입구를 계획보다 더 오랜 시간동안 가로막는 행동을 펼쳤지만 실제로 이 행동을 아는 사람은 여전히 드물며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저하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요컨대, 평가의 기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한 행사의 애초 의도했던 목표와 조응하여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에는 평가과정에 사용될 체크리스트가 제시되어 있다. 이 리스트는 다른 영역의 활동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비전과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전략/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는가?

행동이 문제/갈등 상황과 연관이 되었는가?

참여자들은 누가 이 행동을 기획했는지 인지를 했는가?

참여자들은 전망/전략/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원칙과 규율

행동의 규율에 대한 명확한 논의 과정이 있었는가?

규율이 행동 과정에서 잘 지켜졌는가?

계획했던 구체적인 전략과 실제 수행은 규율에 부합했는가?

참여자들이 자기 자신이나 혹은 다른 참여자가 합의를 기초로 구성된 규율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느꼈는가?

3. 준비와 실습

준비/실습 과정은 적절했는가?

준비/실습 과정은 충분했는가?

준비/실습 과정은 참여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도움을 주었는가?

준비/실습 과정은 참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는가?

준비/실습 과정은 참여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켰는가?

참여자들은 준비/실습 과정에서 뭔가 배운 것이 있다고 느꼈는가?

4. 전술

계획한 전술은 적절했는가?

행동이 계획한 전술대로 진행이 되었는가?

전술은 참여자들의 필요와 기대를 충족시켰는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잘 대처했는가?

전술은 규율/전망/목표와 일치하였는가?

5. 조직

그룹 구성 및 조직과정은 이 행동의 목표/전략/비전/규율에 잘 부합하였는가?

그룹 구성은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는가?

6. 결과

1) 참여자

행동이 참여자들과 연관이 되었는가?

행동이 더 많은 참여자들을 불러모았는가?

참여자들은 행동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는가?
행동이 참여자들의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는가?

2) 행동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들

행동의 메시지는 명확했는가?

행동의 메시지가 목표에 도달했는가?

행동의 메시지가 더 많은 행동과 소통을 증대/감소시켰는가?

상대집단으로부터의 반응이 있었는가?

이와 같은 상대집단의 반응은 이 행동의 목표와 어떻게 관련을 맺었는가?

3) 제3자 집단

그들은 이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였는가?

이 행동이 그들을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는가?

이 행동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불러왔는가?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에 따라 함께 움직였는가(중립적 입장, 관심표명, 입장선회)?

이 평가 폼은 1977년 7월 멕시코 쿠에르나바카에서 열렸던 비폭력행동 트레이닝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개발된 것이다.